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개발

- 당신은 이 사람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이한종(李翰宗)*

논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Situational Empathy-Distress Scale)를 개발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타인의 곤경에 대한 감정반응을 현재의 감정상태의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척도들이 안정된 정서적 특성의 관점에서 공감을 측정한 것과 대조된다. 406명의 대학생들이 곤경에 처한 사람의 가상적 사례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으로 구성된 16문항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상황 공감은 특성 공감 및 이타적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황 불편감은 특성 불편감 및 우울과 이러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두 하위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변별 타당도의 경우, 두 하위척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두 하위척도 모두 사회적 바람직성과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에 의해 지지되었다.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타적 의사를 결과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예측변인으로 특성 공감의 다음 차례에 상황 공감을 투입한 후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상황 공감의 경우 타인 지향 집단에서 자기 중심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상황 불편감은 자기 중심 집단에서 타인 지향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성 공감과 특성 불편감의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어 : 공감, 불편감, 측정

I. 서론

공감(empathy)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타성 및 도덕성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요소이며(Hoffman, 2000),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타 및 배척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ggum, & Di Giunta, 2010). 동일한 곤경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마주 했을 때 인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로 공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특성, 상대방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자신의 인지 또는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각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Decety & Lamm, 2009).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공감적 정서반응의 강도, 즉 상황 공감(situational empathy)을 측정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평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공감 능력 또는 성향을 특성 공감(dispositional empathy)이라 부른다(Zhou, Valiente, & Eisenberg, 2003). 역도에 비유하자면, 특성 공감은 역도 선수가 평상시에 보여준 체력의 정도에 해당되며, 상황 공감은 특정한 대회에서 성취한 개별 기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 간 갈등, 집단 따돌림과 같이 공감의 부재를 시사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자가 양자의 공감 중에서 어느 쪽 관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특성 공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감 능력 또는 성향—역도에 비유하면, 평소의 체력—을 향상시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 또는 성향과 관련하여 현저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또는 특정인의 곤경에 공감하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문제는 현재 경험 중인 상황 공감의 강도—역도에 비유하면, 이번 대회에서 거둔 기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상황 공감은 타인의 곤경을 지각한 후 나타나는 타인 지향적인 정서반응이며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를 촉진한다(Batson, 2011). 동정과 연민은 공감적 정서반응의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 공감은 연구자가 제시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미 발생한 공감적 정서의 강도를 측정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상황 공감에 대해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는 정서 전이(emotional contagion)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Decety, 2010; Eisenberg, 2000; Hoffman, 2000). 이 연구에서는 Batson(2011)이 제시한 공감의 개념을 받아들여 상황 공감과 정서 전이를 서로 다른 감정 상태로 규정한다.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정서 전이는 상황 공감이 발생하기 이전에 경험되는 감정 상태이다. 그러나, 상황 공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정서 전이의 상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는 사람을 보고 자신도 눈물이 나는 것은 정서 전이이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 걱정되는 것은 상황 공감이다. 물론 눈물과 걱정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처럼 슬프지 않아도 상대방을 걱정할 수 있다. 강한 공감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이타적 행동을 취하는 반면(FeldmanHall, Dalgleish, Evans, & Mobbs, 2015), 공감의 결핍은 타인의 복리를 손상시키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Lovett & Sheffield, 2007).

상황 공감과 대비되는 개념인 특성 공감은 평소 타인의 어려움을 목격했을 때 공감적 정서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성 공감 척도인 Davis(1983)의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와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 공감 척도(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QMEE)에 포함된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IRI).”,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QMEE).” 등과 같은 문항들은 특성 공감의 특징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성 공감의 수준은 현재 경험하는 상황 공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Eisenberg et al, 1989). 그러나, 특성 공감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고통에 크게 공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성 공감이 낮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공감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상황 공감의 강도는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 공감뿐만이 아니라 곤경에 놓인 사람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양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 양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 응답자의 과거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atson, Fultzj & Schoenrade, 1987; Decety & Lamm, 2009). 인간이 어떤 조건하에서 누구에게 곤경이 발생했을 때에 더욱 공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은 특성 공감의 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 공감의 측정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인간은 타인의 곤경을 인지한 후 타인 지향적인 공감적 감정과 더불어 자기 중심적인 불편감(distress)을 동시에 경험한다. 불편감은 상대방의 고통을 인지함으로써 인해 초래된 불쾌한 각성 또는 긴장 상태이다(López-Pérez, Carrera, Ambrona, & Ocejia, 2014). 예를 들면, 통증을 호소하는 말기 암 환자의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고 싶은 공감적 감정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암에 걸리지 모른다는 두려움, 즉 자기 중심적인 불편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정서 전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곤경을 겪고 있는 사람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한 후, 주의의 초점이 상대방의 안위에 대한 염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될 때 공감은 감소하고 불편감이 증가하게 된다(Batson, 2011). 그리고, 공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편감도 특성 불편감(dispositional distress)과 상황 불편감(situational distress)으로 개념구별을 할 수 있다(Zhou et al. 2003). 전자는 타인의 곤경을 마주하였을 때 불쾌한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미 발생한 불편감의 강도와 관련된다.

타인의 곤경을 목격하였을 때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중 어느 쪽을 보다 우세하게 경험하게 될 것인지는 타인의 곤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피험자들로 하여금 타인 지향 또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 실험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Batson et al., 1997; Lamm, Batson, & Decety, 2007; López-Pérez et al., 2014). 타인 지향적인 관점에 배치된 피험자들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의 곤경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를 상상하도록 요구받았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배치된 피험자들은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러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주목하도록 했다. 그 결과, 타인 지향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받은 피험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의 피험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상황 공감을 경험함이 확인되었다. 상황 불편감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받은 피험자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의 또 다른 차이는 양자의 감정이 어떤 행동 동기를 발생시키는지와 연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황 공감이 이타적 동기를 촉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황 불편감은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를 발생시킨다(Batson, 2011). 곤경을 겪고 있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격하도록 하고 피험자들의 정서 및 행동반응을 탐색한 실험연구들(Batson et al., 1987; Bierhoff & Rohmann, 2004; Carrera et al., 2013)은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이 이타적 또는 이기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강한 상황 공감을 경험한 피험자들 대부분은 상대방을 돕지 않아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타인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등 회피가 매우 용이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 강한 불편감을 느낀 피험자들 대부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타적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자신의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타적 의사는 상황 회피가 곤란하여 상대방을 도와야만 자신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경우에 국한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동기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였을 때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변인으로 우울한 정서가 있다. 우울과 특성 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의 성과를 분석한 Schreiter, Pijnenborg와 aan het Rot(2013)에 의하면, 우울과 특성 공감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울과 특성 불편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우울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곤경에 대해 높은 불편감을 경험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양자 사이의 이와 같은 정적 상관관계는 국내의 실험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석호, 이영호, 2014). 우울한 상태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자신에게 놓이고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울은 타인의 곤경을 인지한 후 불편감이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Hoffmann et al., 2016).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을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자기 보고형 지필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특성 공감과 특성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한 지필 검사의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의 측정에는 표정, 몸짓, 음성 등의 행동적 지표가 사용되거나 심장 박동수, 피부 전도율, 뇌 영상 등의 생리적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Eisenberg & Fabes, 1990; Zhou et al., 2003). 이러한 행동 및 생리적 지표들은 복수의 훈련된 관찰자 및 의학적 계측 장치를 이용하는 등 측정 과정이 복잡하고 측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은 주로 특성 공감 및 특성 불편감과 관련된 주제들에 편중되어 있다. 평소 가지고 있는 특성 공감과 특성 불편감의 수준은 각각 현재 경험중인 공감과 불편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Batson et al., 1987; Eisenberg et al., 1989), 타인의 곤경에 대한 공감 및 불편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을 밝히는 연구 문제들은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척도가 있어야 탐구될 수 있다.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기 보고형 척도는 Batson et al.(1987)이 제시한 공감 형용사 6개와 불편감 형용사 8개로 구성된 목록이다. 이 목록은 안면 타당도의 검토만을 거친 후 사용되던 감정 반응 질문지(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ERQ; Coke, Batson, & McDavis, 1978)의 23개 문항에 대해 6건의 실험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정된 것이다. Batson et al.의 형용사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공감 형용사들 중에는 현재의 감정상태와 응답자의 자기개념 사이의 구별이 곤란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곱다(softhearted)”, “다정하다(tender)”, “따뜻하다(warm)”가 이에 해당된다. 이 문항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 공감이 아니라 개인의 안정적 특질인 특성 공감을 측정하는 데에 보다 적합한 문항들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특성들을 표현하는 문항들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우려된다.

둘째, Batson et al.(1987)의 연구에서 상황 공감 형용사와 불편감 형용사 사이에 .44에서 .75에 달하는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공감과 불편감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동시에 경험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Batson et al.의 불편감 척도에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 형용사 자체만 제시되었을 경우, 공감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편감 척도에 포함된 “슬프다(grieved)”, “걱정되다(worried)”가 이에 해당된다. 동일한 형용사로 표현된 감정이라 할지라도 해당 감정이 누구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촉진하는지에 따라 불편감과 공감의 구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돕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시달릴까봐 걱정된다면 불편감에 해당되었지만 상대방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라면 공감으로 분류된다. 요인분석에서

도 이 문항들은 불편감과 공감 모두에 .30이상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실험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와 반대로 불편감 보다 공감에서 더 높은 요인 부하량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능력이나 성향과 같은 안정된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반응으로서의 공감과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보고형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Situational Empathy-Distress Scale)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들을 통해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했다. 요인구조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배치된 실험조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쪽 집단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한쪽 집단의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새로 개발된 척도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해당 척도가 측정하는 변인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지지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 공감은 특성 공감 및 이타적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상황 불편감의 경우, 특성 불편감 및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수렴 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다.

변별 타당도는 별개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할수록 양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양자 모두 사회적 바람직성과 낮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야 변별 타당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하더라도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특성 공감 및 특성 불편감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구인 타당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상황 공감 척도의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검토했다. 증분 타당도는 새로 개발된 척도가 기존의 척도에 비해 특정한 결과변인에 대한 예측력을 추가해 주는 정도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특성 공감과 상황 공감 양자 모두 이타적 의사를 촉진하는 변인이지만, 상황 공감의 강도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므로 개인의 안정된 특질인 특성 공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이타적 의사의 수준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이타적 의사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인으로 특성 공감을 먼저 투입하고 다음 단계에 상황 공감을 투입함으로써 이타적 의사의 수준이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정도를 검토했다.

이어서 상황 공감 및 불편감 척도의 구인 타당도 검토를 위해 타인의 곤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두 척도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약 50%에게는 타인 지향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50%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록 요구했다. 개인의 안정된 성향인 특성 공감과 특성 불편감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황 공감에 대해 타인 지향 집단이 자기 중심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상황 불편감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 집단이 타인 지향 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 경우, 상황 공감 및 상황 불편감 척도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인 타당도가 지지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처리과정에 대한 사전설명을 제공했다. 아울러 원하지 않으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렸다.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 강좌를 수강 중인 대학생 423명에게 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실시했다. 결측치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406명(남 105명, 여 301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24세($SD=3.08$)였다.

2. 연구 절차

1) 문항 개발 과정

교육상담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0명에게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을 각 개념별로 10개 이상 기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개인의 성격 및 능력과 같이 안정된 특성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노출된 직후에 경험하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문항이 요구됨을 강조하여 설명했다. 문항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Batson et al.(1987)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 형용사들과 더불어 선행연구들(박인조, 민경환, 2005;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에서 제시된 국어 감정단어 목록도 함께 제공했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문항들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표현이 어색한 것을 제외하고 각 개념별로 25개씩 총 50개의 문항을 확보했다. 이 문항들을 교육상담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5명에게 제시하여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높은 평정을 받은 순으로 각 개념별로 15문항을 선별하여 총 30문항으로 예비 질문지를 구성했다.

선정된 30문항의 응답 분포와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 수업을 수강중인 대학생 68명(남 31명, 여 37명)에게 문항검토를 요청했다. 실시된 예비 질문지의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가상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었다.

“장 선생님(남, 40대 초반)은 시골 분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걸음이 많이 불편해졌으며 왼쪽 손의 움직임도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른 손만큼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몸 탓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일이 힘겨워진 선생님은 더 이상 교단에 서는 일이 힘겹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장 선생님은 현재 대학원에서 학교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학교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근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문작성을 위해서는 약 30시간에 걸쳐 진행된 아동상담의 음성과일을 워드문서로 옮기고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데 손이 불편한 탓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료의 처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문항검토 참여자들은 장 선생님의 사연을 읽고 난 후 질문지에 제시된 감정들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임을 명기했으며 각 문항 옆에는 별도의 공란을 두어 해당 문항의 적합성 혹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기술하도록 요청했다. 다른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특정 문항의 분산 또는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참여자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된 문항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각 개념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을 선별했다.

2) 조사 실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요인구조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406명의 자료를 검토했다. 질문지의 앞부분에는 문항검토시와 동일하게 장 선생님의 대한 안내문을 삽입했다. 조사 참여자들 중 약 50%는 무작위로 타인 지향 집단에 배치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장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 선생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상상하도록 요청했다. 나머지 50%의 참여자들은 자기 중심 집단에 배치하였으며 장 선생님에게 일어난 것과 동일한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도록 요청했다. 조사 참여자 모두 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 질문지에 제시된 감정들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으며, 척도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질문지들에 응답했다. 분석대상 406명 중에서 타인 지향 집단 205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했고, 자기 중심 집단 201명의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밖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분석대상 406명 전체의 자료를 사용했다.

3. 측정도구

1)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척도는 상황 공감 8문항과 상황 불편감 8문항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된다. 성격 및 능력과 같이 안정된 특성이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특정한 상황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각 문항에 기술된 감정을 현재 경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다(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각 척도별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극에 노출된 후 강한 공감 또는 불편감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2)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Davis, 1983)는 공감을 인지 및 정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관점 수용(perspective-taking), 상상(fantasy)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IRI는 상황마다 변화하는 감정반응이 아니라 응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일반적인 반응경향, 즉 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와 차이를 나타낸다. IRI의 각 하위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다(1 =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5 = 나를 매우 잘 표현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으로서의 공감 및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공감적 관심 척도와 개인적 고통 척도를 각각 사용했으며, 강일 등(2009)이 번안한 한국판을 실시했다. 이들이 보고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3, .71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79, .81로 나타났다.

3) 이타적 의사

근경에 처한 상대방을 돕지 않아도 불이익을 겪지 않으며 타인에게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회피가 용이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의사의 수준을 측정했다. 조사 참여자들이 장 선생님이 상담 녹음자료의 축어록 작성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의사가 있는지를 12점 척도로 질문했다(0 = 참여곤란, 11 = 11시간 이상).

4) CES-D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의 한국판(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은 최근 1주일간 우울한 정서를 경험한 빈도를 20문항 4점 척도로 평가한다(1 = 극히 드물게, 4 = 거의 대부분). 전경구 등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4)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C형)

Reynolds(1982)가 개발한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Form C)은 자기보고형 검사 참여자가 솔직하게 응답하기보다 바람직한 답변을 제시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1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진위형으로 제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박중규(2009)가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했다. 내적 합치도는 박중규의 연구에서 .58, 이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III. 결과

1. 요인구조 및 기초통계치

1) 탐색적 요인분석

20문항으로 구성된 상황 공감-불편감 예비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본 조사 참여자 중 타인 지향 집단 205명의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87, Bartlett 검정 결과는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최대우도법과 프로맥스 회전을 적용한 결과, 고유치가 1을 넘는 요인이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 3요인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제 2요인에도 높게 부하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내용상으로도 제 2요인과 직접 연관되었으므로 하위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수행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842.12$ ($df = 376$, $p < .001$), RMSEA = .078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항의 선정을 위해 제 1요인과 제 2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4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16문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4문항은 척도에서 제외시켰다. 16문항으로 구성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요인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했다. 제 1요인은 상황 불편감, 제 2요인은 상황 공감으로 명명했다. 전체 척도에 대한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상황 불편감이 28.45%, 상황 공감이 23.86%였다.

<표 1>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신뢰도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M	SD	문항- 총점 간 상관	α
	요인1	요인2					
상황 불편감							
불안하다	.85	-.04	.78	2.19	1.10	.75	.87
예민해지다	.81	-.04	.60	1.94	1.07	.68	
괴롭다	.79	.13	.75	2.24	1.14	.69	
심란하다	.76	.16	.66	2.84	1.12	.67	
곤혹스럽다	.75	-.09	.48	2.24	1.11	.63	
어찌할 바를 모르다	.64	.02	.45	2.42	1.08	.57	
불편하다	.63	.00	.64	3.21	1.15	.50	
웬지 부담스럽다	.62	-.21	.42	2.66	.90	.50	
상황 공감							
돕고 싶다	-.06	.75	.60	4.02	.74	.61	.85
마음이 움직이다	.13	.74	.66	3.68	.84	.62	
상대방이 걱정되다	.22	.68	.74	3.92	.91	.63	
인정에 끌리다	.04	.68	.68	3.85	.81	.60	
측은한 마음이 들다	-.07	.68	.65	3.99	.86	.56	
공감하다	-.03	.68	.72	3.78	.86	.59	
배려하다	-.04	.67	.57	3.93	.76	.53	
안타깝다	.24	.64	.61	4.22	.87	.54	

주. 탐색적 요인분석의 $n = 205$. 확인적 요인분석의 $n = 201$. 다른 통계치들의 $N = 406$.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16문항 2요인 구조가 적합인지 살펴보기 위해 자기 중심 집단 201명의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는데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의 값을 가지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김대업, 2008).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초로 확인된 지수들은 이 기준들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10이상이면서 동일한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오차항 7쌍 사이에 상관을 허용했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포함된 문항들 사이에는 비슷한 양상의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 가지 적합도 지수가 모두 기준을 만족시킴이 확인되었다.

<표 2>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적합도 계수

모 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수정전	250.15	103	0.839	0.863	.085(.072~.099)
수정후	168.15	96	0.915	0.944	.062(.046~.077)

3) 기초 통계치

16문항으로 최종 확정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기초 통계치를 본 조사의 전체 분석대상 40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황 불편감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평균 1.94~3.21, 표준편차 .90~1.15의 점수범위에 속해 있었다. 상황 공감 척도 문항의 경우, 평균 3.68~4.22, 표준편차 .74~.91의 범위에 있었다.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상황 불편감이 .87, 상황 공감이 .85였다. 문항들과 각 척도의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는 .50~.75의 범위에 있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황 불편감 총점의 평균은 19.74(남 = 19.32, 여 = 19.88), 표준편차는 6.27(남 = 6.82, 여 = 6.07)이었다. 상황 공감 총점의 평균은 31.40(남 = 29.92, 여 = 31.91), 표준편차는 4.63(남 = 5.59, 여 = 4.13)이었다. 평균의 남녀차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코딩한 후 양류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검토했더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상황 공감 점수를 나타냈다($r_{pb} = .19, p < .001$).

2.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와 서로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했다. 상황 공감의 경우, 특성 공감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53, p < .001$), 이타적 의사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31, p < .001$). 상황 불편감의 경우, 특성 불편감($r = .29, p < .001$) 및 우울($r = .26, p < .001$)과 중간수준에 근접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면,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사이의 상관계수는 .10에 불과했다($p < .05$).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관계의 경우, 상황 공감은 .04($p > .05$), 상황 불편감은 -.12($p < .05$)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3> 연구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N= 406)

	1	2	3	4	5	6	7	8
1. 상황 공감	-							
2. 상황 불편감	.10*	-						
3. 특성 공감	.53***	-.02	-					
4. 특성 불편감	.08	.29***	.07	-				
5. 이타적 의사	.31***	-.03	.22***	.06	-			
6. 우울	-.05	.26***	-.11*	.29***	-.04	-		
7. 바람직성	.04	-.12*	.12*	-.30***	.01	-.26***	-	
8. 성별	.19***	.05	.17***	.15**	.17***	.07	.02	-
M	31.40	19.74	26.60	20.90	6.24	36.64	5.49	1.75
SD	4.63	6.27	4.25	4.59	3.53	9.42	2.40	.44

주.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해당 변인에 대한 성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정적 상관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을 의미한다.

* $p < .05$. ** $p < .01$. *** $p < .001$.

3. 상황 공감 척도의 증분 타당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황 공감과 특성 공감은 모두 이타적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상황 공감: $r = .31, p < .001$; 특성 공감: $r = .22, p < .001$). 만일 특성 공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상황 공감이 이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 공감 척도의 구인 타당도는 더욱 지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타적 의사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표 4>와 같이 실시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이타적 의사 점수를 나타내었으므로($r_{fb} = .17, p < .001$),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1단계에 성별을 투입했다($\Delta R^2 = .03, p < .001$). 2단계에서 특성 공감을 투입한 결과 이타적 의사에 대한 설명변량이 4% 증가했다($p < .001$). 마지막 3단계에서 상황 공감을 투입하자 이타적 의사를 설명하는 변량이 5% 증가했다($p < .001$).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 상황 공감은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나타낸 반면($\beta = .26, p < .001$), 특성 공감의 회귀계수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7, p > .05$).

<표 4> 상황 공감 및 특성 공감의 이타적 의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406$)

예측변인	단계	B	$SE B$	β	R^2	ΔR^2	ΔF
성별	1	1.32	.39	.17***	.03	.03	11.28***
성별	2	1.05	.39	.13**	.07	.04	16.74***
특성 공감		.17	.04	.20***			
성별	3	.85	.39	.11*	.11	.05	20.75***
특성 공감		.06	.05	.07			
상황 공감		.19	.04	.26***			

* $p < .05$. ** $p < .01$. *** $p < .001$.

4. 관점 간 비교-타인 지향 대 자기 중심

타인의 불행에 대해 타인 지향 또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받은 두 집단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상황 척도와 특성 척도로 측정된 공감과 불편감 점수에 대해 각각 일원분산분석을 <표 5>와 같이 실시했다. 상황 공감의 경우, 타인 지향 집단에서 자기 중심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F(1, 404) = 4.39, \eta^2 = .01, p < .05$]. 이와 반대로, 상황 불편감은 자기 중심 집단에서 타인 지향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F(1, 404) = 26.18, \eta^2 = .06, p < .001$]. 특성 공감과 특성 불편감 점수의 경우에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5> 상황 및 특성 척도 점수에 대한 관점 간 비교

척도	타인 지향($n=205$)		자기 중심($n=201$)		$F(1, 404)$	η^2
	M	SD	M	SD		
상황 공감	31.93	4.70	30.96	4.53	4.39*	.01
특성 공감	26.78	4.36	26.40	4.12	.78	.00
상황 불편감	17.28	5.39	20.37	6.77	26.18***	.06
특성 불편감	21.21	4.50	20.55	4.68	2.11	.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타인의 고통을 지각한 후의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문항개발 및 타당도 검토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의 가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척도들이 안정된 개인적 특성의 관

점에서 접근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공감과 불편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특성 척도들은 “당신은 평소 타인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이 누구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가?” 또는 “타인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공감보다 불편감을 강하게 경험하는가?”와 같이 공감과 불편감을 상승 또는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과 관련된 연구문제들은 오직 상황 공감과 불편감의 측정을 통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가 다양한 주제의 후속 연구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상황 공감을 측정하는 8문항과 상황 불편감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된 총 16문항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구조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Batson et al.(1987)의 척도의 경우,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사이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두 요인 모두에 높게 부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롭게 개발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경우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사이의 상관관계수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10에 불과했으며 모든 문항들이 오직 하나의 요인에만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를 구성하는 두 하위척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연관되지만 서로 구별되는 상이한 개념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이 특성 공감과 상황 공감, 그리고 상황 공감과 이타적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사해 왔으므로, 상황 공감 척도가 특성 공감 및 이타적 의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상황 공감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판단된다. 상황 불편감 척도의 경우도 인과관계에 놓여있는 특성 불편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초점적인 특성과 부정적 정서라는 특성 때문에 상황 불편감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여겨지는 우울과의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셋째,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면, 상황 공감 척도와 상황 불편감 척도 모두 이론적으로 연관된 수렴 타당도의 지표 이외의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비록 상황 불편감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낮은 수준에 불과했으므로 변별 타당도 역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는 상황 불편감과 이타적 의사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상황 불편감은 상대방을 도와야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타적 행동을 촉진한다 (Batson et al., 1987; Carrera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의사의 정도를 질문했을 뿐이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기로 결정해도 응답자가 누구

인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황 불편감과 이타적 의사 사이에 .06에 불과한 상관관계수가 나타난 것은 상황 불편감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지지한다.

넷째,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가 측정하는 개념이 특성의 관점에서 공감과 불편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황 공감 척도의 구인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이타적 의사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특성 공감과 상황 공감을 예측변인으로 차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특성 공감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타적 의사에 대한 상황 공감의 독립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성 공감과 상황 공감이 회귀식에 동시에 투입된 상황에서 특성 공감이 이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상황 공감이 특성 공감에 비해 이타적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Eisenberg et al., 1989)에서도 상황 공감이 특성 공감과 이타적 동기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함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황 공감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더욱 지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상황 척도에서는 타인의 곤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가 발견된 반면 안정된 특질을 측정하는 특성 척도에서 관점 간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더욱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타인의 곤경을 인지한 후 타인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감정에 주목하도록 한 타인 지향 집단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집중되도록 실험상황을 조성한 자기 중심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상황 공감 점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황 불편감 점수는 이와 반대로 자기 중심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제시한 상황 공감 및 불편감의 개념(Batson, 2011; López-Pérez et al., 2014)을 새로 개발된 척도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Batson et al., 1997; Lamm et al., 2007; López-Pérez et al., 2014).

이 연구를 통해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향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수행될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 자극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타당도를 구축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자극은 타인의 안위와 관계되거나 시급을 요하는 심각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논문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성격을 띠고 있다. Batson et al.(1987)의 연구에 의하면, 제시된 상황자극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응답자들이 문항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요인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보다 나은 모형 적합도를 얻기 위해 일부 오차항 사이의 상관을 허용해야 한 것은 후속 연구에서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2요인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최초로 확인된 요인의 숫자는 3개였

다. 상황 공감 척도의 문항들이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 2요인과 제 3요인에 동시에 높게 부하되는 문항들이 많았던 탓에 이 연구에서는 상황 공감을 단일 요인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공감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ishner, Batson, & Huss, 2011).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sympathy)과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온정(tenderness)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Niezink, Siero, Dijkstra, Buunk와 Barelds(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요인분석 결과가 얻어지기도 했다.

셋째, 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황 공감과 상황 불편감이 실제로 이타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미치는 살펴볼 수 있는 실험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와 이타적 의사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했지만 이타적 의사가 이타적 행동으로 직결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공감과 불편감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다름을 보고하고 있다(Decety & Lamm, 2009; FeldmanHall et al., 2015). 이를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점수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면 척도의 타당도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활성화되는 뇌 영역 차이가 Batson et al.(1987)의 공감 및 불편감 형용사 목록과 연관됨이 Lamm et al.(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대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의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어린 연령의 응답자들에게도 활용가능한 척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일, 기선완, 김성은, 정범석, 황지희, 송지은, 김지웅(2009). 한국어판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8*, 352-358.
- 김대업(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 박인조, 민경환(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박중규(2009). 청소년 대상 단축형 13문항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29-439.
- 이석호, 이영호(2014) 우울한 사람들의 공감정확도와 스스로 보고한 공감능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7-33.
-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Batson, C. D. (2011). *Altruism in hum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51-758.
- Batson, C. D., Fultz, J., & Schoenrade, P. A. (1987). Distress and empathy: Two qualitatively distinct vicarious emotions with different motivational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55*, 19-39.
- Bierhoff, H.-W., & Rohmann, E. (2004). Altruistic personality in the context of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351-365.
- Carrera, P., Ocejia, L., Caballero, A., Muñoz, D., López-Pérez, B., & Ambrona, T. (2013). I feel so sorry! Tapping the joint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onal distress on helping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37*, 335-345.
- Coke, J. S., Batson, C. D., & McDavis, K. (1978).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52-766.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ecety, J. (2010). The neurodevelopment of empathy in humans. *Developmental Neuroscience*

32, 257-267.

- Decety, J., & Lamm, C. (2009). Empathy versus personal distress-recent evidence from social neuroscience. In W. J. Ickes, & J. Decety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199-213).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 131-149.
- Eisenberg, N., Eggum, N. D., & Di Giunta, L. (2010). Empathy-related responding: Associ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aggression, and intergroup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 143-180.
- Eisenberg, N., Miller, P. A., Schaller, M., Fabes, R. A., Fultz, J., Shell, R., & Shea, C. L. (1989). The role of sympathy and altruistic personality traits in helping: A re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7*, 41-67.
- FeldmanHall, O., Dalgleish, T., Evans, D., & Mobbs, D. (2015). Empathic concern drives costly altruism. *NeuroImage, 105*, 347-356.
- Hoffmann, F., Banzhaf, C., Kanske, P., Gärtner, M., Bermpohl, F., & Singer, T. (2016). Empathy in depression: Egocentric and altercentric biases and the role of alexithymi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9*, 23-29.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oper, D., Coughlan, J., Mullen, M.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 53-60.
- Lamm, C., Batson, C. D., & Decety, J. (2007). The neural substrate of human empathy: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42-58.
- Lishner, D. A., Batson, D. C., & Huss, E. (2011). Tenderness and sympathy: Distinct empathic emotions elicited by different forms of ne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614-625.
- López-Pérez, B., Carrera, P., Ambrona, T., & Oceja, L. (2014). Testing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empathy and personal distress: Measuring core affect and self-orienta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1*, 676-680.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1-13.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Niezink, L., Siero, F., Dijkstra, P., Buunk, A., & Barelds, D. (2012). Empathic concern: Distinguishing between tenderness and sympathy. *Motivation & Emotion*, 36, 544-54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Schreiter, S., Pijnenborg, G. H. M., & aan het Rot, M. (2013). Empathy in adults with clinical or subclinical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 1-16.
- Zhou, Q., Valiente, C., & Eisenberg, N. (2003). Empathy and its measuremen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269-28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논문접수 2018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3월 9일 / 게재승인 2018년 3월 22일

* 이한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 E-mail: ehanjong@cnu.ac.kr

Abstract

Development of the Situational Empathy-Distress Scale: How Much Empathy Do You Feel for This Person?

Lee, Han-J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ituational Empathy-Distress Scale(SEDS) which measures emotional reactions to a person in need in terms of the current emotional state as opposed to the stable emotional disposition assessed by most previous measures of empathy. Four hundred six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amining their reactions to a fictitious situation. A two-factor structure, i.e. Situational Empathy(SE) and Situational Distress(SD) consisting of 16 items was verified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n the survey data. Convergent validity was established by the positive correlations of SE scores with dispositional empathy and altruistic willingness and by the positive correlations of SD scores with dispositional distress and depression. Results supported discriminant validity: no strong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two subscales; scores on the two subscales indicated weak correlations with social desirability. Attempts to obtain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were made;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the SE subscal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ediction of altruistic willingness when added to the dispositional empathy measure; higher SE scores and lower SD scores were obtained in the other-perspective condition than in the self-perspective condition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dispositional empathy and distress between the two conditions.

Key words: empathy, distress, measuremen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